

연재

+
동물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최 종 욱
광주우치동물원
lovnai@hanmail.net

동물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하루해가 넘어가는 일몰 무렵이면 늑대가 “우우욱~” 하고 선창하면 모든 개과동물들이 일제히 따라 운다. 공작이 “까루룩”하고 울면 또 모든 새들이 “꼬기욱”. “후후” “후루루룩(칠면조)”하고 각자 전혀 맞지도 않는 흥내 내기를 한참 한다. 마치 군대에서 일과 끝나고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하고 힘차게 내지르는 군가 비슷한 광경이다. 동물 울음소리 하면 새벽녘 닭 울음소리를 많은 분들이 연상하시겠지만 동물원에서 닭마저도 새벽보단 저녁에 더 시끄럽게 울지 새벽녘은 그저 조용하기만 하다.

흔히 동물들의 말소리를 울음소리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조금 고쳐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말을 하는걸 보고 누군가가 “넌 왜 맨 날 우니?”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는가!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태양이 졌다고 세상이 끝나 버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실은 끝나버리는 곳도 있다. 3개월 이상 밤만 지속되는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밤이 되는 게 세상이 끝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밖의 곳에서는 동물들이 슬퍼할 이유가 무에 있겠는가. 여름에는 오히려 태양이 저서 시원해서



더 좋을 거고 겨울에는 편안한 보금자리에 대부분 깃들던지 천적이 잠든 탓에 마음대로 활개 칠 수 있으니 또한 좋을 테고. 누구에게는 슬픔보다 기쁨이 훨씬 앞설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울음이란 탄성, 환희, 웃음 등으로 좀더 다양하게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도 가끔 생각해 본다.

동물들 말소리를 흔히 단순하다고 이야기한다. 개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야옹”이라고 표현하면 거의 끝이다. 근데 그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기분에 따라 “으르렁, 앙양, 그릉그릉~” 등 꽤 여러 가지 말소리를 내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전에 TV에서는 “아이 러브 유!”라고 분명히 말하는 개도 있었고,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코식이’란 코끼리도 있다. 좁은 국토, 애완견 인구가 극히 소수인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니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동물들이 무수히 존재할 것이다. 단지 굳이 말할 필요 없고 서로 친하지 않아서 함부로 안낼 뿐이지 성대구조가 비슷한 포유류끼리 서로의 목소리 흉내 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사람 역시도 무수히 많은 동물들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조류인 구관조나 앵무새도 사람 말 다 알아듣고 다 흉내 내는 건 그들이 다른 동물보다 더 호기심이 많고 사람과 친해지려고 해서 일 것이다.

내가 본 중에서 가장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동물은 코끼리였다. 그리고 반신반의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난 코끼리가 사람 말을 흉내 내는 데 그리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코끼리는 그 긴 코를 마치 리듬 악기처럼 사용해 별의별 소리를 다 내는 걸 직접 보고 있기 때문이다. 코의 소리 음역이 넓으니 당나귀, 하마, 사람목소리까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실제로 코끼리가 많은 태국 같은 곳에서는 트럭이나 차소리를 흉내 내는 코끼리들도 많다고 들었다. 타잔



연재

+
동물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에서 나오는 타잔이 “아아아~ 아아” 하면 “우우웅 ~우웅” 하고 달려오는 소리는 단지 코끼리가 흥분했을 때 내지르는 한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대로 우린 그 소리범주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다. 경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쪼그마한 코끼리 새끼들도 어미 못지않게 크고 선명하며 다양한 소리를 입 한 번 벌리지 않고도 코로만 연출해 낸다.

박쥐들 사는 곳에 들어가면 괜히 머리가 지근거린다. 그들이 초음파를 주고받으면 사람 귀에는 아주 거슬리는 날카로운 진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초음파는 우리 몸을 침투 또는 관통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분이 느껴지리라고 생각한다. ‘혹시 애들을 우리 몸을 살이 아닌 뼈다귀 혹은 알몸으로 인식할까?’ 하는 불길한 생각을 가져보기도 한다. 진정한 침묵의 대왕은 기린일 것이다. 비슷하게 목이 긴 사슴도 그보다 훨씬 작아도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낸다. 그러나 기린은 평생 소리다운 소리를 내어보지 못한다. 심지어 태어날 때와 죽을 때까지 신음한번 내지 않는다. 몇몇 학자들은 기린도 돌고래처럼 코를 통해 초음파를 내 의사교환을 한다고 한다. 그들은 키가 타 동물에 비해 월등히 크고 눈이 좋으니 높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눈빛언어만으로도 서로 통할지 모른다. 뭐 눈빛만으로 통한다면 굳이 뭘 말이 필요하겠는가? 사람은 말 때문에 망하고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다는데, 여러 말 안 하고 짧은 몇 가지 소리만으로도 서로 잘 통하는 심플한 동물들의 삶이 요즘 들어 부쩍 부러워 보인다. Fin~

